

풍경소리

- 무엇이 된다는 것

종이 그 속을 비운 이유는 멀리까지 소리를 울리기 위함이고 거울이 세상 모습을 평등하게 담을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맑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아래로만 흐르는 것은 넓은 바다가 되기 위함이고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 헤자스님/도선사 주지

나는 다만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바라본 출신의 수학자 목건원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그 많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깨달음을 이룬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이도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르침을 베풀었는데도 왜 그러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변했다. "나는 다만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길을 가고 아니 가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 김원각/시인

"나는 왜 항상 앞서가는 너를 따라가야만 하니? 이번엔 내가 먼저 갈테다."

앞에 놓여 있는 불을 보고 머리가 한사코 말렸지만 성급한 꼬리는 벌써 돌진한 뒤였습니다.

공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 맹란자/수필가

꿈

새가 되고 싶다. 물이 되고 싶다. 바람이 되고 싶다. 그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이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새처럼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끼고 돌아가고 산을 만나면 두팔을 가득 보듬어 안고 함께 가며 가시철망 세멘콘크리트를 만나면 배밑이로 기어가다가. 흙을 만나면 땅속 깊이 스며들어 마침내는 이윽고 팔팔 좌르르 흘러 갈 수 있는 물이라면 늘 머물러 있으면서 늘 떠나고 늘 떠나면서도 늘 또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바람이라면

- 김성동/소설가

꼬리와 머리

(자료제공 : 한국불교 종단협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화가 난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따졌습나다.

나도 한마디 교도들을 위한 조직적 사회봉사를...

현재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를 활성화하며 질병, 노령, 장애, 재해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차별성의 원칙에 따라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지원이 될 뿐 정서적, 심리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공식적 지원의 활성화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 천주교 등 개신교에서는 각 교회별로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어렵고, 고통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보살펴 주고 있어 "중국 사람들은 불모지에 진출할 때 식당을 열고, 한국인들은 교회를 연다"라는 속언이 생길 정도로 교회의 숫자는 전세계에서 면적당 밀집도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불교단체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하며 개신교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총지종의 경우 교도들의 연령은 노령화되어 일평생을 음미반배출 진언연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중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며 생활하였지만 나이가 들어 이제는 거동도 불편해서 절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 사원에서는 통리원의 지원과 보조를 기

대하지 말고 각 사원 주교와 신정회 회원들의 정기적인 만남과 조직적인 활동으로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모셔오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교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보살펴 주며, 각 사원별로 경로법회 및 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방편이 아닐 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부처님의 자비실현은 결코 큰 사업을 실시하고, 큰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를 살펴보고 작은 정성과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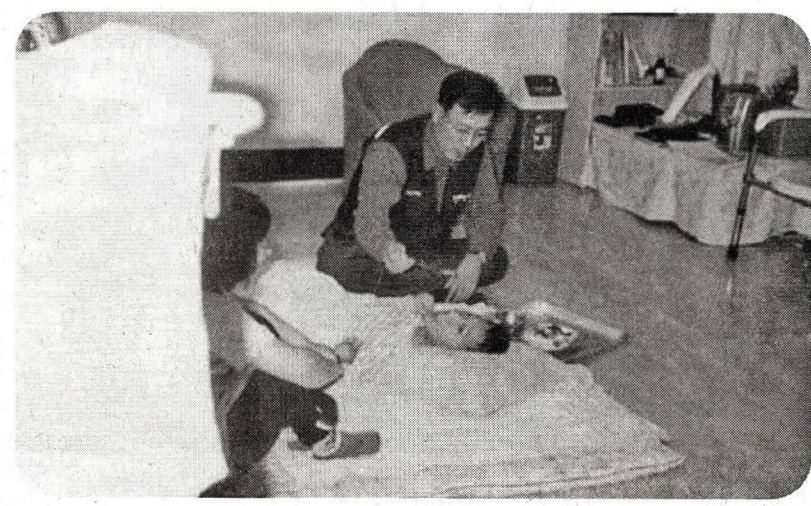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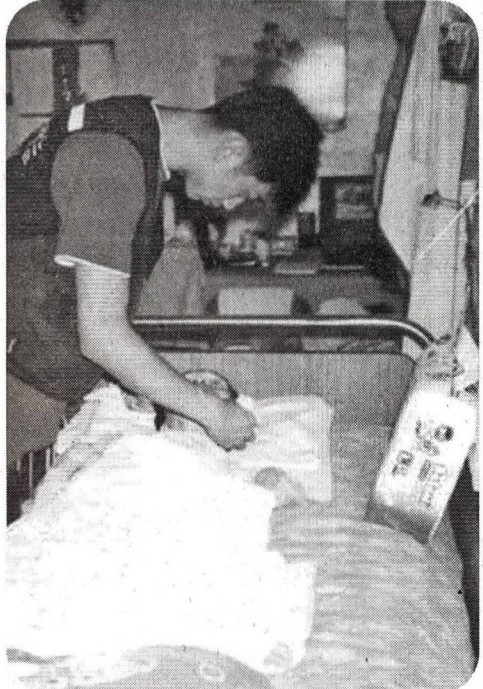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동 김형선

나도 한마디는 총지중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중보, 총지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중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중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 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yj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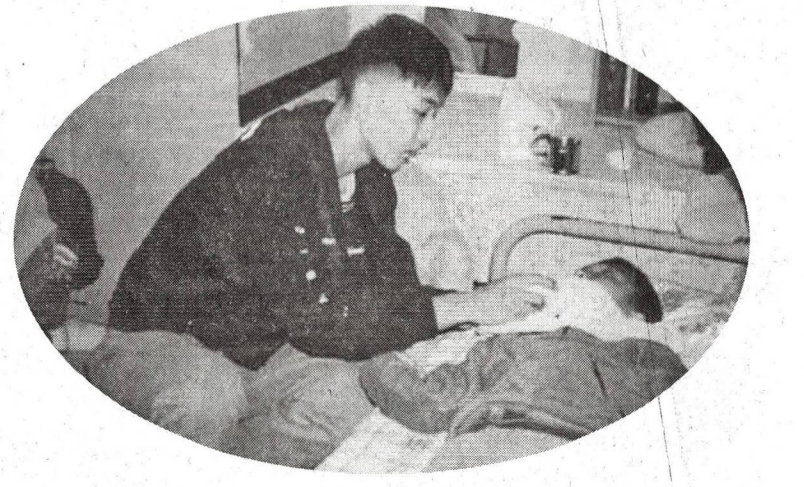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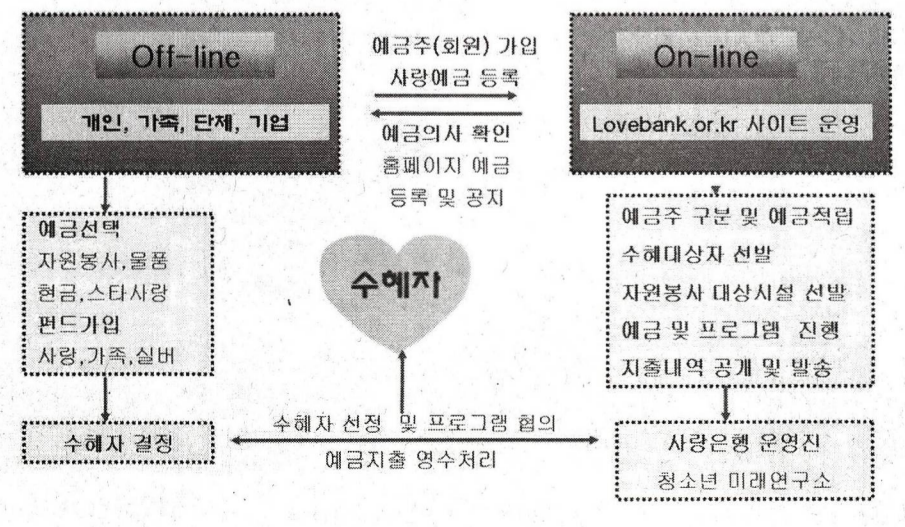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24화-



꿈 희망 사랑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중생은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엇그레만 해도 나무들 사이에서는 낙엽들이 아름다운 옷으로 같이 입고 들녘에는 농부들이 추수하느라 바쁜 일손을 움직였던 것 같더니 오늘은 나무의 낙엽들은 하나 들씩 떨어져 길바닥에 뒹굴러 있고, 들녘에는 농부들의 바쁜 일손은 보이지 않고 황량한 벌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은 부지불식간에 흘러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늙지않고 평생동안 살 것만 같이 탐욕으로 가득하여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복잡하고 바쁜 서울의 도심에서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영천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포항에 도착하여 시내버스를 타고 30분정도 달려가 동해바다를 출렁이는 흥해읍에 도착하니 한가로운 농촌풍경 속에 하늘은 늦가을 비가 내린 다음날이라 청아하게 맑은 모습으로 오는 나그네를 맞이하였고 초행길이라 흥해를 로타리에서 내려 3분정도 걸어가니 넓은 공터에 기와집으로 선립사 사택과 서원당이 양옆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뒷밭에서는 배추와 무우가 소복하게 지라하고 있었다.

선립사는 한문으로 착할선 설립으로 착한 사람들만 모여사는 곳으로 이곳에 들어오면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공덕을 입어 병고해탈을 이루고,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교화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선립사의 유래

선립사는 총기 2년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에 한옥 건물에 임차하여 의창선교부로 개설하여 현재 기로 스승인 불멸심 전수님이 초대주교로 재임하시면서 개척하였고 총기11년 현 주교인 보원정사, 심지장전수님이 주교로 임명되어 22년동안 선립사에서 교화를 하고 계시나.

인지상정수순

어느덧 가을은 가고 입동이 지나 창고철을 앞두고 인지상정으로 몇 자 적습니다. 원정 종조님의 그 위대한 법통을 이어받아 일심으로 변치않은 특정 종령님은 종조님 뜻을 수순하면서 종단발전과 스승의 도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선립사에 철따라 일 년 두세번씩 방문하시면서 협소한 방에서 1박 2일

하지 않고 왕래하시고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시던 수성님을 지켜보았다. 수행할 적에 개천사에서 법을 배우고 수성님과 법상원 전수님께서 수행정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삼년동안 개천사에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보았던 것은 따뜻한 가정과 화합함이 항상 존재했고 진실한 내시는 것 없었고 언제나 묵묵히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저는 어떻게 하면 심분의 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까하고 생각한 나머지 아침 일찍 일어나 개천사 뒤뜰을 보니 바다의 검은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나의 업도 저렇게 많은 때와 업장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

좋을 때는 부처가 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중생이 되어 성불을 이룰 수 없다. 보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수록 마음을 잘 다스리면 복도 있고 보배를 가질 수가 있다. 내 마음의 보배는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면서 수행할 수록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반복하여 걸어보면 청정한 경지에 도달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엇드려 바라노니, 주인공이!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켜 기어코 성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속된 인연과 뉘바편 소견을 모두 버려라.” 여기서 엇드려 바라노는 것은 지심정례(至心頂禮)입니다.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스스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일깨우는 것인가? 결단과 정열이 갖든 의지, 기어코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속된 인연들, 번뇌 망상으로 뉘바편 소견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뉘바편 소견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네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

넘어서 열반의 네가지 모습인 상·낙·아·정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도를 닦기를 원한다면 뉘바편 소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뉘바편 소견을 버릴 때 헛된 욕심이 사라져서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지면 불도를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이 불도 수행에 대한 결론입니다. 불도! 그것은 생사를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즉 깨달음은 간절한 일념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수행을 통해 이룩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과법은 필연적인 요소

“선남자야 온갖 현상은 자업(自業)의 인연의 힘으로 인하여 생겨 나느니라. 이 인연이 시시각각 머 무르지 아니하여 번개빛과 같거나 인연 탓으로 온갖 사물이 생기고 인연 탓으로 온갖 사물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인연을 떠난다면 업보(業報)도 없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그 자체로 무수한 관계 무수한 인연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과 지식, 친구와 이웃 그리고 사회와 국가 등 각종의 보



씩 쉬어 가셨다. 그러나 호화로운 호텔을 마다하고 불편한 곳에 머무른 뜻을 생각했을 때 일체 보살님들의 정성어린 보시금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종단화합이 절대 우선으로 종단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제1회 춘계강공회를 앞두고 선립사를 방문하신 그 때가 생전에 마지막인 줄 몰랐다. 강공 후 특정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특정님에게 미숙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번 강공회에서 수성님께서 종령으로 추대되어 감격했고 법계 부처님도 인정했음을 알았다. 수많은 업적과 종단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몸을 아끼지 않고 종단수습 때문에 대구에서 서울로 하루가 멀다

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가짐으로 청소를 하여 깨끗해진 바다를 보니 나의 마음도 한결 깨끗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개천사에서 수행을 한 후 선립사에 부임하여 중생교화를 위해 보살님들과 용맹정진을 하고 있다. 수행자는 잊어론에게 수순하는 것이 수행자로서 자기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업장으로 다가올을 아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이며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도 막을 수가 없다. 마음의 진실은 모든 만물의 보배요, 자기 아상을 가지게 되면 판단력이 소멸되어 내가 기분이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부정을 부정으로 인식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인연이 모여 이룩된 현상은 독립자존의 것은 없고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그 현상 또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또한 인연의 속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함과 행복과 자유자재로움과 청정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속에서는 영원함도 행복함도 자유자재로움도 쉽게 찾지 못합니다. 청정함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무상할 뿐입니다. 나만의 자유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무너지면 나까지 무너지는 무어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어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괴(苦)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청정함을 추구하지만 육체는 근본적으로 청정한 것이 아니며 번뇌 망상으로 가득 찬 마음 또한 청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무연(無緣)처럼 존재했던 세상 인연들이 모두 유연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와 세상은 가까운 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독단적인 존재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실력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싫어 먼 산속이나 무인도에서 혼자 독거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완전히 절연할 수 없습니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몇 년전에는 흥해읍에서 가장 많은 교도들이 모임 정도로 법력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골지역이라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나이가 많은 보살들은 이승의 인연을 다하고 저세상으로 떠난 교도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스승님들에게 시골에서 교화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힘든 일이 있겠는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비록 물질적으로 도시처럼 풍족하지 않지만 마음만 항상 풍요롭게 생활하며 교도들이 병고해탈을 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각자가 소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승자로서 보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교도와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1동 197
전화 : 054)261-0310

